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72	Subscription	\$10.00 per year
출판일	음력 7월 10일 26일 금요일	Issue No.	1772
		Date	Dec. 5, 1969: Fri.

미군철퇴 계속을 시사

(워싱턴 12월6일 밤, 에이피) 전담 10일간에 걸쳐 비에트남을 시찰한 팻카-드군방사관은, 5일의 기자회견에서 "남비에트남군의 전투능력은 향상하고 있으며, 북비에트남군의 침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미군의 철퇴는 계속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팻카-드사관은 철퇴인원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치 않았는데, "시간이 오면, 비에트남주류 미군을 15만명 이하로 삭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크리스마스 와 정월에 쌍방이 휴전 발표

(사이공 12월5일 밤, 에이피) 남비에트남정부는 4일, 크리스마스 와 정월일에 24시간 휴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방전선은 5일 방송을 통해서 각 3일의 휴전을 발표하였다. 해방전선의 휴전선언에 속하면, 크리스마스는 사이공시간 24일 오전 1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정월에는 30일 오전 1시부터 1월 2일 오전 1시까지로 되어 있다. 미군사령부는 남비에트남정부의 휴전에 동조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평교섭에는 비관적, 미국우장관 단

(부트셀 12월4일 밤, 에이피) 라자-스쿠우장관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의상 회의에서 연설, "미국은 북비에트남과의 화평교섭에 노력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비관적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남비에트남, 미라이촌의 학살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각료로서 처음으로 상세한 발언을 하였다. 라자-스쿠우장관의 이 연설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하여지고, 대변인의 의해서 전래된 것으로, 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파리 화평 회담에 있어서, 남비에트남국민의 자결권이 외의 모든 것 에 대해서 포섭할 용의가 있다.
1. 미라이 학살사건의 보도에 나선 정공은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군 병사는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1. 랩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미-소전략병기제한교섭은 2주간내에 중단, 스미스미대로는 미국의 도중, 부트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국에 들어서 보고를 한다.
1. 소련과 동구권이 제안한 "주야과 안전보장 회의"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태도를 취하겠다.

(제 1 편)



화평조건의 용의. 비에트콩 방송이 보도

(홍콩 12월6일밤, 에이피) 홍콩에서들은 해방방송은, 남비에트침입시정부는 "미국이 평화를 희망한다면, 미국의 명예를 잊지안코 비에트전쟁으로부터 손을 댈수있는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동방송은 조건의 내용에대해서 해설하지안었다. 이보도는 선전의 표시 인지 화평고섭의 새로운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전체는 레아드미국방장관과 조지 윌레스시에대한 장문의 공격이었다.

랏지 화평회담 대표 리임

(파리 12월6일밤, 에이피) 파리회담 화평 회담의 미수석대사를 사임한 랏지씨는 6일, 부인파감이 파리의 오후리공함으로부터 보스톤에향해서 귀국하였다. 화평고섭의 정돈중 10개월 재임한 랏지씨는 공방에서 기자단에대해서 "우리들 평화를 희망하는자는 속히 랏담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랏지씨의 후임에는 아직 지명이없다.

손미촌의 학살사건에 명령 내지않았다

(와싱톤 12월5일밤, 공동) 손미촌학살사건에관한 주남베에트침입제11여단제20보병제1대대 시중대의 어-네스드.메디나대위(당시 중대장)는 4일 국방성의 비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한후, 첫 기자회견을하였다. 동대위는 "손미촌학살사건에대한 보도는 극히 편벽되었다" 라고 비판하고, "나는 학살을 보지못하였고, 또 그러한 명령을 누구에도 주지안었다." 라고 말하였다. 또 동대위가 명백한바에의하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같다.

손미촌의 소랑락전은 오전7시, 로적 포함계 시작되어, 오전7시반, 공격부대를 실은 첫 헬리콥터가 착륙하였다. 이후 내가 착륙지점에 적이있는가를 물었습대, 무기를가진 비에트콩이 도주중이라는 보고를받았다. 그래서 나는 적을 소랑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정보에의하면 부인이나 아래들은 시장에 나가있으며, 험장에는 없다는것이였다. 나는 손미촌박제, 지휘지점들만들고, 미루이 촌 부락에는 들어가지안었다. 나는 부인이나 아래들의 시체를 몇개보았다. 내가 험장을 더난것은 정오 직전이었다. 이작전에대해서 나는 20명으로부터 28명의 비전수원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

캘리포니아를 육군 조사위가 심문. 증언은 극비

(와싱톤 12월6일밤, 공동) 손미촌학살사건에관하는 미육군의 조사위원회는 5일 동사건의 당사자 윌리암.캘리포니아를 3시간에걸쳐서 심문하였다. 그러나 동증위의 증언은 극비로되어있으며, 또 증위자신 전까지는 손미촌의 학살에대해서 기자단에 말하기를 강력히 거부하고있다. 윌리암.피아스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된 동위원회는, 손미촌사건의 보고가 68년 3월16일의 발생후, 1년간이나 사이곤의 미육군당국이나 국방총성당국에 도달하지안은 이유의 조사를 명령받고있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소원한 증인의 증언공포를 거부하고있다. 또 동위원회는 학살에 종사한 부대의 지휘관 어-네스드.메디나대위를 이미 심문하고있는데, 동대위는 심문중에 기자회견을하고, "학살을 명령한적도없고, 목격도하지안었다" 라고 증언하고있다.

오기나와 기지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발표

(나하 12월4일밤, 공동) 오기나와기지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발표하였다. (제3면에 계속)

(제2면으로부터 계속)

해고이유에대해서 4군함노동동위는 "군사비 삭감에의한것이다" 라고 언명하고있는데, 미육이 72년에 시정결반원에 대비해서, 미군오기나와기지의 재편성, 합리화의 일환으로서 내세운것은 확실하다. 발표에의하면 해고의 대상이 되는것은 육군각부대, 오기나와기지노동부대, 캐나다, 나하 양 공군기지, 해군각부대등 광범위에 걸쳐있다. 내용중 해고의 순서는 제1차가 214명, 그야외의 192명 합계406명으로, 5일 해고공고를발고, 내년1월20일까지에 해고가 실시된다. 제2차는 1월 15일에 동고되어, 이에 육군공용의 오기나와 현지종업원 1천명내지 1천8백명, 미국민간인종업원 350명, 기타 약60명의 제3국인의 종업원이 포함된다. 또 4, 5월경에 예정되고있는 제3차 계획에서는 공군관제현지종업원 2백명파 해군관제가 예정 되어있다.

해고 철회 투쟁 태세

오기나와기지노동자 5만5천명의 약4%되는 전업업은 대량해고에대해서 전오기나와노동조합(2만1천명)은, 조직의 총력을 다해서 해고철회투쟁을 진전시킬 태세를보이고있으며, 금후 70년 안보를마지하여 오기나와의 대중운동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주목된다.

예상된것이라고 일본정부태도 냉정

(동경 12월4일밤, 공동) 정부는 4일, 재오기나와미군이 근로동자의 대량해고를 발표한것에대해 예상된것으로서 냉정이 받고있다. 그러나 금후 72년의 복귀가 가까워오매다라 이러한 "복귀의 충격" 이 계속될것이라고보기때문에, 이번 정부와 류큐정부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리직자의 견지, 장태에의 보상에 만전을 취하며, 오기나와 주민의 불안해소에 힘을 쓴다고한다. 육이 정부는 이미 리직자대책으로서 본년도예산에 14만불을 계산하고있으며, 오기나와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입법조치가 완료되어있기때문에, 당면 해고자에대한 응급대책은 강구될것으로, 현지 세론의 진정을 호소하고있다. 정부는 또 미군측이 전체로서 삭감의 방향에 향하고있는것은 확실하기때문에, 금후 류큐정부의 의향을 드르면서 계획적인 리직자대책을 입안하여간다고한다. 육이 류큐정부는 미군기지의반대의 입장을 취하고있기때문에, 해고반대투쟁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고에대하는 사회불안에대해서는 락관적이다.

소련. 동구측이 서독에 교섭수락 회답

(모스크바 12월5일밤, 공동) 공산측에의하면, 모스크바에서 3일부터 열리고있는 소련, 동구 7개국수뇌회의는 4일 종료되었다. 동측은 회의는 당면의 국제정세에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말하고 구체적내용은 불명인데, 서독의 소련, 폴란드 약국에대한 회담제안에대해서, 월샤의조약 제국으로서 어디까지 대처할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었다는것은 확실하다. 소련, 폴란드는 이회의 결과에따라, 가까이 서독에대해서 교섭수락의 회담을 보낼것으로 기대된다. 회의후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보장담성에관한 사회주의제국의 결의를 표명하는동시에, 독일 문제에서는 모든 나라에의한 동독의 국제법상의 승인과, 구라파의 협국정의 승인을 요구, 또 서독에관해서는 전의 선거후 그에따르는 신정권의 동장을 환영, 금후에의 기대를 표명하였다.

중동화평위한 4대국 회담 개최

(뉴욕 12월6일밤, 국련본부 에이피) 중동화평 4대국 회담은 6일, 배합국련주재불란서대사의 공저에서 열렸다. 4대국은 회담의 내용을 명백히하지안었는데, 가라몬 영국대사는 5일, 영국으로서는 마레스치나 난민문제를 제기하고, 리수선으로 오의하도록 노력할 의향을 시사하고있다.



마약상습자가 八백만명, 워싱턴

(워싱턴 12월4일밤, 에이피) 미국정부는 닉슨대통령을 선두로 매리외나등 마약전멸의 전국적인 운동을 시작하였다. 닉슨대통령은 3일 국무성에서 열린 마약에 관한 전국주지사회의실에서 연설, "마약은 미국의 정신을 좀먹어가고있다. 그의 해는 이미 여러 개총에 침투하고, 적게 추산하더라도 8백만인의 미국국민이 어느 마약 경험자로, 지도자급에도 유행하고있다. 이데로가면, 미국은 멸망해간다" 라고 말하였다. 동대통령은 또 워싱턴에서의 범칙수 격증이 문제가 되어있는데, 워싱턴의 피스톨강도의 반은 마약상습자라고 지적하였다. 이회의에서 깃첸사법장관은 "마약범칙 수사강화를 위해, 각주에서 통일적인 실시가능의 법률의 원안을 작성중이다" 라고 말하였다.

소득세의 면세액 상원서 증액가결

(워싱턴 12월3일밤, 에이피) 상원은 3일 그야 민주당상원의원이 제출한 개인소득세의 면세액 인상수정안을 찬성 58대 반대 37로가결, 세계개혁법안에 가결것을 작정하였다. 이수정안은 면세액을 연행의 6백불로부터 70년에는 7백불, 71년에는 8백불로 순차 인상한다는것, 한편으로 닉슨대통령은 이러한 수정안을 포함하는 세계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발동할런지도모른다고 경고하고있다.

사회보장금 증액, 하원서 입위에서 가결

(워싱턴 12월3일밤, 에이피) 하원세입위원회는 3일, 70년1월1일부터 사회보장금부의 15%증액 권고를 의원이지도 가결하였다. 동위원회 팀즈위원장은 "수입내에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 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크리스마스휴가직전에 상원에서 통과할런지는 의문이다. 권고에의한 급여의 증액은 1월1일부터, 실제의 지불이 증액되는것은 4월1일부터가된다.

미군 포로 3명을 북선이 석방

(서울 12월3일밤, 에이피) 8월17일 한국국경에서 15마일의 북조선영내에서 격추된 미군해리플러 승무원3인이 3일, 판문점에서 석방되었다. 이3명은 크로워드대위, 레주제준위, 오로스렛터 4등 육기병이다. 오로스렛터육기병은 깃팻이를 갖고있으며, 아직 다리의 상처가 낫지안었다는것이다. 판문점에서의 북조선대표와의 회견에서 애담스미해병대소장은 "북조선영공의 침공은 범죄행위 였다"라고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 그후에 3명은 석방되었다. 석방후 미육군은 "범죄행위" 라는 인정을 철회하였다. 3명은 미동부표준시간 10일아침 미본도를향해 귀국한다.

인사소식

동지회중앙부장이신 미정근씨는 신환으로 12월4일에 구아키니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시라는데, 신속히 원상복구를 얻어 퇴원퇴가하시기를 일반동지회원들은 기대하고있다고한다.

사망보고

본인이 신환으로 입원치료당시, 동지회오상부원으로서 9월12일에 별세한 서복순여사와 10월11일 별세하신 리만엽씨 두분의 사망보고가 무락되어, 미안한 인사의 말씀을 드려옵고 또 금월 1일 사망하신 오상부원 정종식씨등 3인의 오상마납조를 청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회중앙부재부 김 장 수 보고

